

BAZAAR

Harper's
TALK

삶과 예술 사이에서

2004년 배우 신현빈은 로댕갤러리에서 안규철 작가의 개인전 <49개의 방>을 보고 한국종합예술학교 미술이론과에 지원하게 됐다. 당시 지성적 사유와 수공예적 특성이 결합된 작품을 선보이던 안규철 작가가 학생을 가르치던 학교였다. 스승과 제자는 오래간만에 인터뷰이와 인터뷰이가 되어 전시장에서 재회했다.



*지연된 도량
앞에 나란히 선
작가 안규철과
배우 신현빈

국제갤러리 1관 인규철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일> 설치 전경



WHEN THE SKY IS GRAY.
RAINY WEATHER. SAD MUSIC.
BAD WEATHER. ON MONDAY.
SOMEONE'S DEATH.
DEPRESSING MOVIE. THE BILL.
HOPELESS SITUATION.
STRESS OF EVERYDAY.
BREAK UP WITH GIRLFRIEND.
FINANCIAL WORRIES.
ILLNESS. DYE OUT IN THE EGAN.
LOSING JOB. IF YOU GO AWAY.
NOT GETTING THE PROMOTION.
BUSINESS PROBLEM.
PERSONAL PROBLEM

HE DOESN'T KNOW ANY SHAME
AND IS BOLD AS BRASS.
YOU SHAME YOURSELF ACTING
THIS WAY. I'M NOT ASHAMED OF
SAVING THE. AREN'T YOU
ASHAMED TO SAY THAT? I'M NOT
ASHAMED OF WHAT I DO. THEIR
NAMES WERE PLACED ON THE
"BILL OF SHAME". LEE WOULD
BE A SHAME AND PUNISHMENT
FOR YOU. HE THAT HAS NO SHAME
HAS NO CONSCIENCE. I FEEL
SHAME AT DOING THE WORK.
WHERE THERE IS NO SHAME.
THERE IS NO HONOR. HE SAID
THERE'S NO SHAME IN THE FOR-
BIDDEN LOVE. I DON'T KNOW
HOW YOU WILL BEAR THE SHAME.
I FELT MY FACE BURNING WITH
SHAME.



국제갤러리 1관 인규철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일> 설치 전경

사진 / Kemin Park, 국제갤러리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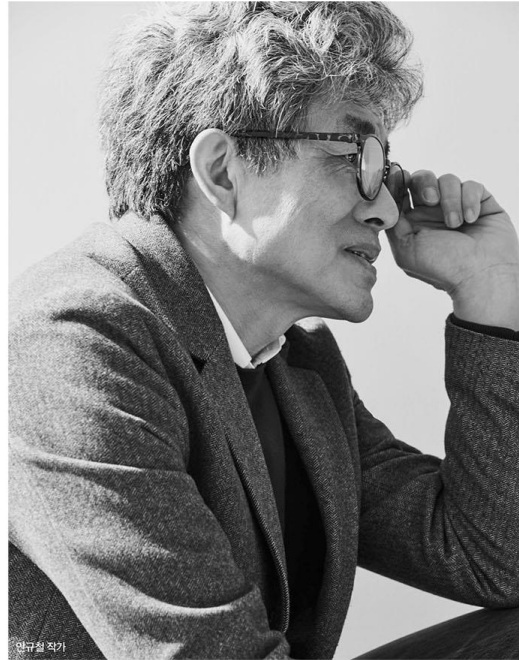
말과 사물 사이의 중개인. 작가 안규철 자신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말보다 그를 더 잘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일상을 둘러싼 사물에 대한 관찰이나 사유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삼는 그의 작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사리 지나쳐버린 소소한 사물과 순간들에 대한 영동한 상상과 질문들로 가득하다.

이번 국제갤러리에서의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은 예술이 있는 삶과 예술이 없는 삶에 대해 질문하며 시작된다. 두 대의 자전거를 앞뒤로 나누어 같은 방향으로만 이어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두 대의 자전거), 펠트로 만들어져 소리가 나지 않는 종, 상자 속에 붙어 있어 떠날 수 없는 바퀴들, 화려한 표범무늬 옷을 입은 양, 크기를 같게 만든 각기 다른 종들의 공들, 레일 구조물의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어 생각보다 천천히 굴러가는 공(‘지연된 도착’), 섬세한 구상 작업으로 시작했으나 도리어 추상적이 된 그림들(‘달을 그리는 밤’), 배의 노르다리를 만들어 머물지도, 떠나가지도 못하는 의자(‘노/의자’)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 사물들은 작가의 상상과 손길을 거쳐 우리앞에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 질문을 던진다.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물의 면면은 모순적일 만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원래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닌, 어쩌면 예상된 실패를 향해 답답히 나아가는 사물들의 모습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면서도 때론 기대 밖의 것을 성취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다시금 삶이 되는 순간 속에서 조금은 거창할 지물라도 나는 그를 삶과 예술 사이의 중개인이라 부르고 싶다.

언제나 선생님의 전시와 작품 제목은 시어 같았습니다. 지난 전시의 제목은 마쭉기 시인의 시에서 가져온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였고 이번 전시의 제목은 〈당신만을 위한 말〉인데요. 제목만으로도 어떤 심상을 불러일으키고 사뭇 로맨틱하게 들리니까 합니다. 감정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미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적으로 완벽한 미술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미술을 해야겠다고요. 내 작업의 두 가지 축이라는 게 이야기와 사물인데 이 둘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작가적인 위치가 자리매김돼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걸 어떻게 좀 더 포용력 있는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게 하느냐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과 같은 제목의 작품인 ‘당신만을 위한 말’은 지난 전시의 ‘침묵의 방’을 떠올리게 해요. ‘침묵의 방’은 크고 둥근 공모양의 텅 빈 공간에 들어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 모든 사소한 움직임이 소리가 되어 돌아오는 작품입니다. 평소 의식조차 못하던 작은 소리마저 되돌아오는 것이 조금은 무섭기도 하면서 묘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기억이 나요. 반대로 펠트 천으로 만들어진 ‘당신만을 위한 말’은 일부러 다가가 어떤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만을 위한 말’도 ‘침묵의 방’처럼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생각했어요. 작품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송국 녹음실처럼 소리가 썩 뻘뻘 들어간 것 같은 부드러운 블랭클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건 구부러져 있어서 팔을 볼 수 없고 숨겨진 상태로 프레젠테이션 해서 조금 더 은밀한 느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공간상 불가능했죠. 두 작품을 만들 때 말하자면 이상한 기구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만을 위한 말’의 펠트 천으로 감싸여 있는 구조물은 외부의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밖으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작가노트에 썼듯이 그것은 세상의 말들이 사라지는 소설적이고, 우리의 비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고, 진실과 거짓 너머의 영원한 침묵으로



안규철 작가

“아주 평범한 대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럴 때 느끼는 희열 같은 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미술 작업에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결국은 뭔가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내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이어지는 톤로입니다. 아무도 알 필요 없는, 오직 당신의 한 마디 말을 위해 비어 있는 독백의 공간이네요. 여기 와서 관객들이 나만을 위한 말이 과연 있을까, 나에게만 있는 말, 나에게만 있는 의미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개념미술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선생님의 작업을 개념미술로 분류하곤 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작업에는 개념적인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관객을 위한 자리를 비워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하는 일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이 그 공간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한 길 같아요. 개념미술은 내 작업의 일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념적인 요소 반대편에는 그렇지 않은 요소, 즉, 형태, 감각, 노동,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념이 없는 미술은 문제죠. 뇌가 없는 미술이나 마찬가지로. (웃음) 개념미술이라는 타이틀은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그 용어에 백프로 동의할 수 없고, 개념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간과되고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들고 나온 것뿐이에요.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초에 선보인 오브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려는 생각을 배제한, 건조하고 딱딱한 외관의 철학적 수수께끼와 같은 작품들은 부조리극 무대를 연상시킵니다. 작업노트에서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결코 간단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걸 포기하고 DIY, 혼자서 조물조물딱 시간 들여서 노동하며 형태를 만들어왔습니다. 기기에 감각적인 매혹, 장식적인 요소 같은 것들은 들어갈 틈이 별로 없죠. 나의 태도가 급속적인 취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좀 유연해져야겠다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양한 유채색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금기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인을 가리켜 "손의 노동으로 생각을 펼쳐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미술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하나라고 보시는데, 예술을 하는 도구로서의 몸 에 대한 나름의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생으로 조각을 전공하던 시절에 미켈란젤로가 했다는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문은 제왕처럼 노동은 노예처럼." 시도 썼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근사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저는 조각가는 노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자기 맘 홀리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인고의 고통을 겪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예술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 '수공'이 중요한 수밖에 없지만 요즘은 의식적으로도 내 작품에 닿는 손길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들이 작가의 생명과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고정관념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공장에 보내서 작품 제작 후 곧바로 미술관으로 배달하게 했는데, 나는 그 태도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미니멀리즘의 강령에 위배되는 일이나 내가 그걸 따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동시에 유머러스하고, 냉소적인 것 같지만 따뜻하고, 투박하지만 위묘가 되어주는 말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 개념적인 접근을 하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로맨틱하고 감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작품에서도 그런 점이 자연스럽게 담기는 것 같긴 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별칭인 농담, 엉뚱한 상상 에 의한 농담에 그런 요소가 항상 있었어요. 하 수상한 세상에 화가 나는데 그 분노를 미술 안에서 풀이내는 방식, 울분을 토해내는 방식에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써 농담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매일 고뇌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노래도 해야 되고 농담도 해야 되고, 작업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백지를 마주하는 습관을 오래도록 지켜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선생님께서 일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대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럴 때 느끼는 희열 같은 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미술 작업에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다. 그런 게 글을 쓰다가 떠오를 때도 있고 아침에 널 놓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떠오를 때도 있지요. 그런 순간들이 결국은 원가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내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자문단장을 맡아 사업을 지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문래동, 을지로 등 산업이 쇠퇴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입주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공공미술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 층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요. 미술관급 전시를 하는 작가들은 잘 안 하려 하고, 젊은 신진작가들은 진입을 못해요. 시민들은 공공미술에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은 그들대로 너무 행정 차원의 접근을 하죠. 저금부터는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대입하고 웬만하면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가 다른 작업을 위해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순환적인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작가들이 일종의 돈벌이의 영역이며 영원히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남는 일로 공공미술을 생각하는 걸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젊은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대학 수업을 통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

글/ 신현빈(배우) 에디터/ 민동선



국제갤러리 1관 인규철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 설치 전경

사진/ Keith Park, 국제갤러리 제공